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과 주민특성이 공공병원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심인옥¹, 황은정^{2*}

¹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²세한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Performance of Public Health Servic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Community Image of Public Hospitals

In Ok Sim¹, Eun Jeong Hwang^{2*}

¹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33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관련 특성과 관할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지역주민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2011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통해 수집된 이차자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일부 추출하여 수행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114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후 참여를 허락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3월~9월까지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최종 대상자 수는 총 1,789명으로, 남자 891명(49.80%), 여자 898명(50.20%)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공공병원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군과 부정적 이미지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p<.001$), 최종 교육형태($p<.001$), 직업유무($p<.05$), 월평균 수입($p<.001$), 1년 이내에 해당 공공병원 이용경험 여부($p<.001$)이었다. 공공병원에 대해 지역주민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OR=0.34$, 95% $CI=0.19-0.60$), 최종 교육형태($OR=3.03$, 95% $CI=1.60-5.76$), 최근 1년 이내 해당 공공병원 이용경험($OR=0.57$, 95% $CI=0.40-0.81$), 건강수준($OR=0.69$, 95% $CI=0.49-0.96$), 거주 지역유형($OR=2.10$, 95% $CI=1.11-3.99$), 지역주민 1,000명당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적($OR=0.58$, 95% $CI=0.35-0.96$)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지방정부는 공공병원으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으로 꾸준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병원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공공보건의료사업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지역주민들에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purposes to identify the effects of performance of public health services (PH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community image to public hospital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3 public hospitals and 1,789 community residents. The data of '2011 Public hospital evaluation programme' were utilized in this study.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consisted of nine items which were gender, age, education, occupation, monthly incomes, medical security, use experience, health state, and location type. The PHS performance consisted of five items which were number of doctors, number of nurses, total number of staff, budget per 1,000 community residents, and amount of activities per 1,000 community residents. The cronbach's alpha of community image instrument was 0.916. As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the significant variables of community image, were age ($OR=0.34$, 95% $CI=0.19-0.60$), education ($OR=3.03$, 95% $CI=1.60-5.76$), use experience ($OR=0.57$, 95% $CI=0.40-0.81$), health state ($OR=0.69$, 95% $CI=0.49-0.96$), location type ($OR=2.10$, 95% $CI=1.11-3.99$), and amount of activities per 1,000 community residents ($OR=0.58$, 95% $CI=0.35-0.96$). Community image is very important to public hospitals. The workforce and budget related PHS were significantly demanded to improve community imag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support to public hospitals to perform PHS effectively.

Keywords : Public hospital, Public health service, Community, Image

이 논문은 2015년 세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씌어진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Eun Jeong Hwang(Sehan University)

Tel: +82-61-469-1315 email:ejhwang@sehan.ac.kr

Received June 11, 2015

Revised (1st July 1, 2015, 2nd July 6, 2015)

Accepted September 11, 2015

Published September 30, 201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기관의 이미지는 흔히 그 기관의 정체성을 포함한다[1]. 기관의 정체성은 그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주요활동으로 표현되며, 타 기관과의 차별성을 나타내어 그 기관의 존재이유를 나타낸다. 이렇듯 기관의 이미지에 그 기관의 정체성이 표현되다 보니 기관의 이미지에 따라 정체성이 다르게 인식되기도 하여 기관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공공병원은 개인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 재화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2].

따라서 공공병원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의료서비스 보다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재정수익성과 무관하게 국민들의 필요에 보다 부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3]. 공공병원의 정체성은 공익 추구를 통한 공공성 강화이며, 이러한 공공병원의 정체성이 공공병원에 대한 이미지에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개 공공병원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공병원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이미지로 공공병원다운 병원, 지역보건 의료에 기여하는 병원이 순위에 제시되어 있었다[4].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전 국민의료보험 도입 이후 민간의료기관의 급속한 확충으로 의료공급이 민간에 의해 주도되고, 이후 경제성 우선 정책으로 인해 공공병원의 공공성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00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병원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호환자를 위한 진료,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 서비스, 공공진료사업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해 왔다[2].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수요를 감소시켜 의료비 증가를 억제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5]. 또한 공공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해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기관의 공익적 활동이 기관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소비자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6]. 또한, 사회적 책임활동의 인식과 태도가 기업 이미지와 높은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7]. 이렇듯 기관의 이미지 제고에 공익적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민간병원에서도 다양한 공익적 의료 활동에 참여하고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8]에 의하면, 비영리병원의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 활동은 병원 이미지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의료기관도 성장과정에서 생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미지를 공익사업 수행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 하였다[9].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공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소득층만을 위한 서비스이며, 심지어 불필요한 서비스로까지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4]. 공공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일회성이고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 미충족 서비스 파악 노력 부족,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 많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10]. 공공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지역주민들의 이미지 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 때마침 2013년 전부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11].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계획인 공공보건의료계획도 2011년부터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가지 분야로 개편하여 공공병원 전반으로 확대 강화하고자 하였다[10].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할 것이다. 이미지는 주관적 감정으로 개인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감안하여 지역주민 특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과 그 주요 대상인 지역주민들의 특성이 공공병원에

대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공공병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투입 자원과 수행 과정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연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 발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30개 지방의료원과 3개 적십자병원, 총 33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관련 특성과 관할 지역 주민의 특성이 지역주민의 공공병원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향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이미지 제고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병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지역주민 특성을 파악한다.
- 2) 공공병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3) 공공병원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주민 특성과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설계

본 연구는 33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관련 특성과 관할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지역주민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1.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1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대상 기관인 34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으로 총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수를 일차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런 다음, 39개 대상기관 중 자료가 미비한 6개 기관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33개 기관과 1,789명 지역주민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2011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12]를 통해 수집된 이차자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일부 추출하여 수행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과 지역주민 인지도 조사결과이다.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은 33개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2010년 1년간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실적이었다. 지역주민들의 공공병원에 대한 이미지는 33개 대상기관 주 진료권과 소재 지역 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1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본 연구의 지역주민 대상자수는 33개 대상기관의 주 진료권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 각 50명을 선정하였고, 3개 대상병원의 경우 주 진료권과 소재 지역이 달라 각 지역에서 각각 50명씩 선정하였다. 이들 대상기관의 주 진료권은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의 보고서[13]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역주민 이미지 조사는 조사과정 및 결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설문기관에 위탁하여 전화설문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응답의 차이로 인한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을 그룹으로 묶어 그룹별 동수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114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후 참여를 허락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3월~9월까지였다.

2.1.3 연구도구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14]에서 ‘200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통해 개발한 지역주민 인지도 설문조사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연구도구는 내용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일차적으로 병원 인지도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한 후 공공병원 실정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보완하였다. 이차단계에서는 개발도구 초안에 대해 학계, 연구원, 실무자, 공무원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구를 확정하였다. 지역주민 이미지 조사도구와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의 구성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1.3.1 지역주민 이미지

본 연구에서의 지역주민 이미지 조사도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2011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12]

를 통해 개발하였다. 자가 응답 설문 양식의 10개 항목 즉, 신뢰성, 전통성, 친근함, 생동감, 편리성, 의료진 친절성, 병원시설 청결성, 의료기술의 우수성, 최신 의료기기와 시설, 치료결과 만족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scale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별로 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약간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총 점수는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미지가 좋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 이미지 총 점수 50점의 중간값인 25점을 기준으로 26점 이상인 집단은 긍정적 이미지군으로, 25점 이하인 집단은 부정적 이미지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주민 이미지 조사도구의 Cronbach's Alpha는 0.916이었다.

2.1.3.2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관련 특성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은 구조영역과 과정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구조영역에는 투입된 주요 자원인 인력과 예산 중심으로 구성하였는데 즉, 투입된 의사 수, 투입된 간호사 수, 투입된 전체 인력 수, 지역주민 1,000명당 집행예산액이었다. 과정영역은 지역주민 1,000명당 사업 실적을 포함하였다. 이는 '2011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평가지표로 제시한 변수를 기초로 하였다[12]. 각 변수들의 의미 및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투입된 의사 수는 2010년 1년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투입된 전담 의사 명수를 의미한다. 투입된 간호사 수는 2010년 1년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투입된 전담 간호사 명수를 의미한다. 투입된 전체 인력 수는 2010년 1년간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투입된 전담 직원 명수를 의미한다. 지역주민 1,000명당 집행예산액은 2010년 1년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예산(자체 예산과 지방정부 지원예산 모두 포함) 중 실제 집행액을 2010년 기준 해당 공공병원의 주 진료권내(시군구 단위) 인구수 1,000명으로 나눈 값이다. 지역주민 1,000명당 사업실적은 2010년 1년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 수를 2010년 기준 해당 공공병원의 주 진료권내(시군구 단위) 인구수 1,000명으로 나눈 값이다.

2.1.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버전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를 공공병원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 집단과 부정적 이미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 일반적 특성과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에 따른 차이는 χ^2 -test를 사용하여 단변량 분석 비교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과 지역주민 이미지간의 관련성은 Pearson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이 지역주민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확률 $p < .05$ (양측 검정)하에서 시행하였다.

2.2 연구 결과

2.2.1 긍정적 이미지군과 부정적 이미지군 간의 대상자 일반적 특성과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 비교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최종 대상자 수는 총 1,789명으로, 남자 891명(49.80%), 여자 898명(50.20%)이었다. 연령은 60세 이상이 598명(33.43%), 최종 교육 형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569명(33.25%), 월평균 수입은 1백만 원~3백만 원이 530명(39.03%), 현재 스스로가 인지하는 본인의 건강상태는 '좋다'가 866명(48.40%), 대상자 거주 지역은 중소도시가 1,146명(64.06%)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이 있는 사람이 1,444명(80.71%), 의료보장형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641명(95.0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공공병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89명(32.92%)으로,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1,200명(67.08%) 보다 적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공공병원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군과 부정적 이미지군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p < .001$), 최종 교육형태($p < .001$), 직업유무($p < .05$), 월평균 수입($p < .001$), 1년 이내에 해당 공공병원 이용경험 여부($p < .001$)이었다.

본 연구에서 공공병원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군과 부

정적 이미지군 간의 관할 지역 내 공공병원의 공공보건 의료사업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 의사가 전혀 없는 공공병원 관할 지역 내 대상자는 1,739명(97.2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 간호사가 2명 이상인 공공병원 관할 지역 내 대상자가 848명(47.40%), 전체 공공보건의료사업 투입

인력 수가 3~5명인 공공병원 관할 지역 내 대상자가 944명(52.77%), 공공보건의료사업 집행 예산이 지역 내 인구 1,000명당 500,000원이하인 공공병원 관할 지역 내 대상자가 994명(55.56%),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실적이 지역 내 인구 1,000명당 3건 이상인 공공병원 관할 지역 내 대상자가 894명(49.97%)으로 가장 많았다. 본

Table 1. Difference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ublic health services performance between positive image group and negative image group

| Classification | Variables | Category | Total | | Positive Image Group | | Negative Image Group | | X ² | p |
|------------------------------------|---------------------------------------|----------------------------|-------|-------|----------------------|-------|----------------------|--------|----------------|------|
| | | | N | % | N | % | N | % | | |
| Personal characteristics | Gender | Male | 891 | 49.80 | 747 | 41.75 | 144 | 8.05 | 2.753 | .107 |
| | | Female | 898 | 50.20 | 726 | 40.58 | 172 | 9.62 | | |
| | Age(yrs) | 20~29 | 212 | 11.85 | 186 | 10.40 | 26 | 1.45 | 83.477 | .000 |
| | | 30~39 | 195 | 10.90 | 123 | 6.88 | 72 | 4.02 | | |
| | | 40~49 | 324 | 18.11 | 246 | 13.75 | 78 | 4.36 | | |
| | | 50~59 | 460 | 25.71 | 384 | 21.46 | 76 | 4.25 | | |
| | | ≥60 | 598 | 33.43 | 534 | 29.85 | 64 | 3.58 | | |
| |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or below | 337 | 19.70 | 302 | 17.65 | 35 | 2.05 | 35.033 | .000 |
| | | Middle school | 256 | 14.96 | 228 | 13.32 | 28 | 1.64 | | |
| | | High school | 549 | 32.09 | 441 | 25.78 | 108 | 6.31 | | |
| | | Over University | 569 | 33.25 | 435 | 25.42 | 134 | 7.83 | | |
| | Occupation | No occupied | 345 | 19.29 | 301 | 16.83 | 44 | 2.46 | 7.085 | .007 |
| | | Occupied | 1444 | 80.71 | 1172 | 65.51 | 272 | 15.20 | | |
| Monthly income (/₩1,000) | <1,000 | 383 | 28.20 | 345 | 25.40 | 38 | 2.80 | 24.766 | .000 | |
| | 1,000~3,000 | 530 | 39.03 | 422 | 31.08 | 108 | 7.95 | | | |
| | 3,000~5,000 | 325 | 23.93 | 255 | 18.78 | 70 | 5.15 | | | |
| | >5,000 | 120 | 8.84 | 91 | 6.70 | 29 | 2.14 | | | |
| Medical security | National health insurance | 1641 | 95.08 | 1344 | 77.87 | 297 | 17.21 | 0.866 | .649 | |
| | Medicare type1 | 56 | 3.24 | 47 | 2.72 | 9 | 0.52 | | | |
| | Medicare type2 | 29 | 1.68 | 22 | 1.27 | 7 | 0.41 | | | |
| Use experience (in recent 1year) | No | 1200 | 67.08 | 954 | 53.33 | 246 | 13.75 | 20.164 | .000 | |
| | Yes | 589 | 32.92 | 519 | 29.01 | 70 | 3.91 | | | |
| Health state | Bad | 313 | 17.50 | 265 | 14.81 | 48 | 2.69 | 4.293 | .117 | |
| | Neutral | 610 | 34.10 | 487 | 27.22 | 123 | 6.88 | | | |
| | Good | 866 | 48.40 | 721 | 40.30 | 145 | 8.10 | | | |
| Location | Metropolitan city | 443 | 24.76 | 363 | 20.29 | 80 | 4.47 | 0.109 | .947 | |
| | Middle size city | 1,146 | 64.06 | 944 | 52.77 | 202 | 11.29 | | | |
| | Rural areas | 200 | 11.18 | 166 | 9.28 | 34 | 1.90 | | | |
| Public health services performance | No. of doctors | 0 | 1,739 | 97.20 | 1,430 | 79.93 | 309 | 17.27 | 0.475 | .577 |
| | | 1 | 50 | 2.80 | 43 | 2.41 | 7 | 0.39 | | |
| | No. of Nurses | 0 | 298 | 16.66 | 251 | 14.03 | 47 | 2.63 | 0.898 | .638 |
| | | 1 | 643 | 35.94 | 526 | 29.40 | 117 | 6.54 | | |
| | | ≥2 | 848 | 47.40 | 696 | 38.90 | 152 | 8.50 | | |
| | Total No. of Staff | ≤2 | 496 | 27.72 | 417 | 23.31 | 79 | 4.41 | 1.847 | .397 |
| | | 3~5 | 944 | 52.77 | 767 | 42.87 | 177 | 9.90 | | |
| | | ≥6 | 349 | 19.51 | 289 | 16.16 | 60 | 3.35 | | |
| | Budget per 1,000 population (/₩1,000) | ≤500 | 994 | 55.56 | 816 | 45.61 | 178 | 9.95 | 0.136 | .934 |
| | | 500~1,000 | 299 | 16.71 | 246 | 13.75 | 53 | 2.96 | | |
| | | ≥1,000 | 496 | 27.73 | 411 | 22.98 | 85 | 4.75 | | |
| | Amount of PHS per 1,000 population | <1.5 | 646 | 36.11 | 527 | 29.46 | 119 | 6.65 | 2.171 | .338 |
| | | 1.5~3 | 249 | 13.92 | 199 | 11.12 | 50 | 2.80 | | |
| | | >3 | 894 | 49.97 | 747 | 41.75 | 147 | 8.22 | | |

No response was excluded

† Occupation : Housewife and student were included in occupied.

연구 대상기관의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별로 긍정적 이미지군과 부정적 이미지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

2.2.2 일반적 특성,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과 지역주민 이미지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 지역주민 이미지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병원에 대한 지역주민 이미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연령($p<.001$), 직업유무($p<.05$), 의료보장형태($p<.05$), 월평균 수입($p<.001$), 1년 이내에 해당 공공병원을 이용한 경험($p<.001$), 거주 지역 유형($p<.05$) 이었다. 공공병원에 대

한 지역주민 이미지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성별($p<.05$), 교육수준($p<.001$)이었다. 공공병원에 대한 지역주민 이미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은 지역주민 1,000명당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실적($p<.05$) 이었다.

2.2.3 지역주민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반적 특성과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이 지역주민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지역주민 이미지 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2. Regression results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public health services performance on community image

| Variables | Category | Odds ratio | 95% CI |
|---------------------------|----------------------------|------------|-------------|
| Gender (=male) | | 0.93 | 0.67 - 1.28 |
| Age | 20 ~ 29 | 1.73 | 0.83 - 3.59 |
| | 30 ~ 39 | 0.34 | 0.19 - 0.60 |
| | 40 ~ 49 | 0.67 | 0.39 - 1.13 |
| | 50 ~ 59 | 0.73 | 0.46- 1.18 |
| | ≥60 | referent | |
|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or below | 3.03 | 1.60 - 5.76 |
| | Middle school | 2.80 | 1.57 - 5.00 |
| | High school | 1.79 | 1.24 - 2.58 |
| | Over University | referent | |
| Occupation(= no occupied) | | 1.20 | 0.73 - 1.99 |
| Monthly income (/₩1,000) | <1,000 | 1.46 | 0.76 - 2.82 |
| | 1,000 ~ 3,000 | 1.04 | 0.62 - 1.74 |
| | 3,000 ~ 5,000 | 1.32 | 0.78 - 2.24 |
| | >5,000 | referent | |
| Medical security | National health insurance | 1.22 | 0.33 - 4.50 |
| | Medicare type1 | 0.92 | 0.20 - 4.21 |
| | Medicare type2 | referent | |
| Use experience (=no) | | 0.57 | 0.40 - 0.81 |
| Health state | Bad | 0.75 | 0.46 - 1.23 |
| | Neutral | 0.69 | 0.49 - 0.96 |
| | Good | referent | |
| Location type | Metropolitan city | 2.10 | 1.11 - 3.99 |
| | Mid-sized city | 1.78 | 0.99 - 3.22 |
| | Rural areas | referent | |
| No. of doctors (=0) | | 0.66 | 0.22 - 1.95 |
| No. of nurses (/person) | 0 | 0.85 | 0.42 - 1.73 |
| | 1 | 0.67 | 0.41 - 1.09 |
| | ≥2 | referent | |
| No. of staff (/person) | ≤2 | 2.67 | 0.96 - 7.45 |
| | 3 ~ 5 | 1.52 | 0.86 - 2.69 |
| | ≥6 | referent | |
| Budget (/₩1,000) | ≤500 | 0.84 | 0.48 - 1.49 |
| | 500 ~ 1,000 | 0.90 | 0.48 - 1.69 |
| | ≥1,000 | referent | |
| Amount of activities | <1.5 | 0.79 | 0.55 - 1.13 |
| | 1.5 ~ 3 | 0.58 | 0.35 - 0.96 |
| | >3 | referent | |

구축된 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Convergence criterion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Log L=1093.899, Chi-Square=111.353, $p<.001$). 공공병원에 대해 지역주민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최종 교육형태, 최근 1년 이내 해당 공공병원 이용 경험, 건강수준, 거주 지역유형, 지역주민 1,000명당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적으로 나타났다. 즉, 30대 대상자는 60대 이상 대상자에 비해 공공병원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확률이 34% 이었다(OR=0.34, 95% CI=0.19-0.60). 최종 교육형태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대상자는 대졸 이상인 대상자 보다 공공병원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확률이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OR=3.03, 95% CI=1.60-5.76).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공공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비해 공공병원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확률이 57% 이었다(OR=0.57, 95% CI=0.40-0.81). 스스로 인지하는 본인의 건강수준이 ‘보통’이라고 답한 대상자는 ‘좋다’고 답한 대상자에 비해 공공병원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확률이 69%이었다(OR=0.69, 95% CI=0.49-0.96).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 보다 공공병원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확률이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OR=2.10, 95% CI=1.11-3.99). 지역주민 1,000명당 수행실적이 1.5~3건인 공공병원 지역 대상자는 3건 이상인 공공병원 지역 대상자 보다 공공병원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확률이 58%인 것으로 나타났다(OR=0.58 95% CI=0.35-0.96).

2.3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30개 지방의료원과 3개 적십자병원, 총 33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주 진료권내 지역주민들의 일반적 특성과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이 공공병원에 대한 지역주민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실적($p<.05$)이 공공병원에 대한 지역주민 이미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공공병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실적과 투입의사수($p<.05$), 투입간호사 수($p<.001$), 전체 투입인력 수($p<.001$), 투입예산($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이 많을수록 수행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상 다수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투입 인력과 예산규모가 클수록 수행실적이 많아 질 것이며 이는 서비스 혜택 범위가 넓어져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선행 연구[15]에 따르면, 해당 공공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 보다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공공병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직접 서비스를 접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공공병원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이미지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4]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개 공공병원 지역주민들이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 안 좋아서’, ‘시설과 장비가 안 좋아서’, ‘실력 있는 의사가 없어서’ 등을 주요하게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공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공공병원을 선택한 이유로 ‘의사의 실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지역주민들이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유도하지만, 예산이나 수행실적이 미흡한 공공병원의 경우 지역주민이 관할 공공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 또한 줄어들므로써 긍정적 이미지 형성기회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듯 지역주민들의 공공병원 경험 여부에 따라 이미지에 큰 차이를 보임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공공병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대상자들의 공공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5]. 본 연구결과에서도 연령이 높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대상자들의 공공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공공병원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공공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은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연령이 높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대상자들의 공공병원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공공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실제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외래 15.8%, 입원 32.1%로 같은

규모의 민간병원의 외래 10.5%, 입원 16.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6]. 공공병원은 설립목적이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의료보호환자나 행려환자 등을 거부하기 힘들고 타 병원에서 기피되어 넘겨진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으로 민간병원과 다른 진료행태를 보여주고 있다[3].

본 연구결과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투입된 전담 인력은 의사 수, 간호사 수, 전체 인력 수가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공공병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긍정적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투입되는 전담 의료진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다른 업무와 겸직하며 특히, 의사의 경우는 환자 진료에 치중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서의 업무비중이 매우 낮으며, 간호사의 경우도 의사 보다는 전담인력이 많지만 비슷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의사가 전담인력으로 배치된 경우는 2.6%에 불과하며, 간호사가 전담인력으로 배치된 경우는 64.1%로 비교적 높지만 실제로 보면 대부분 기관 당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이는 관할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상 턱없이 부족한 인력일 것이다. 더욱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적정진료,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임상진료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서비스로 구성되었다[10]. 따라서 의료인들의 역할이 매우 크며 적정 수의 의료 인력이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할 것이다. 더욱이 2011년부터 시작된 제3기 공공보건의료계획(2011~2015년)에서는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가 새로이 포함됨으로써 의료인의 역할이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한 수의 의료 인력을 투입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이미지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의료인력 뿐 아니라 조직체계, 예산 등도 부실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부서현황에서 상시 전담부서 설치는 26.5%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기존조직에서 겸임인력 배치가 5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8].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예산이 확보된 기관의 비율이 69.4%이고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비율이 22.4%나 되었다[18].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민간에 비해 공익 또는 공공가치 등 공공성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19]. 하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기관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직원들의 공익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적 지원이 원활할 경우 직원들의 공익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의욕을 보이지만 재정이 원활히 지원되지 못하면 의욕이 감소되어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열악한 인력과 예산으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미지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공공병원의 이미지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여전히 낙후된 의료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4].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공공병원을 찾는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의료수익이 낮아지고 병원 경영의 효율성은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실제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병상가동률이 2006년 84.3%에서 2010년 83.7%로 해마다 감소하는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공공병원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 등을 하지만, 열악한 중소형 공공병원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홍보마케팅 비용 발생하며, 인지도가 높은 대형 공공기관과 인지도가 낮은 공공기관 간에 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21]. 따라서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인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면서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침체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료 환경의 변화로 공공병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도 시장 논리로 경쟁하고 금융지원도 시장성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병원은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인 공익적 보건의료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각 시도는 공공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30개 지방의료원과 3개 적십자병원, 총 33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주 진료권내 지역주민 특성과 공공보건의료사업 특성이 공공병원에 대한 지역주민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향후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병원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수행하였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려 노력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없이는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지방정부는 공공병원으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으로 꾸준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병원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공공보건의료사업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지역주민들에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한계는 지역주민 대상자 수를 한 공공병원 지역 당 50명으로 제한되어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해야 함을 밝힌다. 또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승낙한 대상자만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모집단의 일반적 특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긍정적 이미지군의 대상자 수가 부정적 이미지군의 대상자 수에 비해 높은 것은 전화설문에 승낙한 대상자들이 공공병원에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지역주민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는바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함을 밝혀둔다. 향후 표본 수를 확대하여 현재의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성과평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S. S. Jung. *A study on the impact of medical social work on the hospital 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2010.
 [2]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A study on*

establishment plan and its' evaluation of public health services to reinforce public characteristics and its's evaluation of public hospitals. p. 18-49. Moon Young Sa, 2006.

- [3] H. S. Jeong, & K. H. Lee. Efficiency of public hospitals and their social role.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6(2), p.1-13, 1996.
 [4]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trategy and feasibility study of construction of district hospital*. p. 71-90. Moon Young Sa, 2008.
 [5] J. H. Park. Strategies for public health service development in the times of local autonomy.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12(3), p. 1-22, 2002.
 DOI: <http://dx.doi.org/10.4332/KJHPA.2002.12.3.001>
 [6] Ahn JA, Hwang KA, Yoon SN. Analysis for the Consumers' Cognition and Opinion ab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Korea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Studies*, 56, p.237-256, 2011.
 [7] S. J. Oh.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perception of the corporate on the corporate 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2008.
 [8] H. R. Jeon. *Influences a CSR on image reputation of at hospital : a comparison of nonprofit hospital and profit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3.
 [9] J. H. Park, & H. C. Ki. *Medical marketing*. Daehak Book Corporate, 2010.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nter for Public Health. *The 3rd public health services plan (2011-2015): evaluation of 2011 public health plan and results*. p. 12-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nter for Public Health, 2012.
 [11]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Public Health Act [Internet]. Seoul: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cited 2015 May 1].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main.html>. (accessed May, 1, 2015)
 [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Medical Center. *2011 Public hospital evaluation programme: survey report..* p. 182-192. Eden Welfare Foundation, 2006.
 [13]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A study on improvement of public function and effective management of district public hospitals*. p. 372. Han Ill Printing, 2006.
 [14]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2009 Public hospital evaluation programme: survey report*. p.

363-368. Han Hak Literature, 2009.

- [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Medical Center. *2010 Public hospital evaluation programme: survey report*. p. 233-244. Moon Young Sa, 2011.
- [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Medical Center. *2010 monitoring of to district public hospitals..* p.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 [17] D. Y. Kwo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urses' morale.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y Society*, 15(2), p.225-238, 2001.
- [18]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public health service workforce in public hospitals*. p. 68-75.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7.
- [19] Herbson G. Grimshaw D. Marchington M. PPPs and the changing public sector ethos : case-study evidence from the health and local authority sector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7(3), p.481-501, 2003.
DOI: <http://dx.doi.org/10.1177/09500170030173005>
- [20] H. Y. Lee. *The effec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job motivation on job satisfaction : (the) cases of Quangos employe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13.
- [21] M. H. Lee. *Revision of indicators and survey methods of customers' satisfaction in public institutions*. National Assembly Budget Special Committee, 2012.

황 은 정(Eun Jeong Hwang)

[정회원]



- 2003년 3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0년 4월 : 국립중앙의료원
- 2015년 3월 ~ 현재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 공공의료

심 인 옥(In-Ok Sim)

[정회원]



- 2010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관심분야>
아동간호, 유머중재, 음악감각